순천시, 시민주도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빛 발하다

양심운전자 찾기 · 찾아가는 시민의식 교육 · 학교 앞 노란발자국 등

순천시는 행복순천시민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길환 · 최두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도의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이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이 교통문화를 크게 향상시켜 2017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 1위와 안전문화 대상을 수상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행복순천시민운동추진위원회는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정신과 건전한 순천인의 행동이 되고자 시민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로 2015년부터 ▲양심운전자 찾기 ▲교차로 교통질서 준수 100% 도전 ▲찾아가는 시민의식 교육 ▲학교 앞 노란발자국 등 다양한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양심운전자 찾기'는 늦은 밤 신호위반이 잦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 정지선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등 교통법규를 지킨 양심운전자를 찾아 3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증정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65명의 양심운전자를 선정했다.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 제3 · 4지역, 청년회의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양심운전자 찾기를 후원하고 참여했다. 특히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 제3 · 4지역은 2015년부터 매년 일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고 있으며 17개 클럽이 릴레이로 양심운전자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양심운전자 찾기는 다른 봉사단체로 확산되어 순천이수로타리클럽이 지난해 7월부터 양심운전자 찾기를 자체적으로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0명의 양심운전자를 선정했다.

또한, 도로상에서 지켜야 하는 교통질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두 함께 실천해 보자는 의미로 '교차로 교통질서 준수 100% 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신호 및 정지선 준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모두 준수하면 도전 성공이다.

도전에 성공하면 후원단체에서 동주민센터로 선물을 기증하고, 동에서는 선물을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올해는 왕조1동 주민자치위원회, 어린이집연합회, 청년연합회가 후원했다.

교차로 교통질서 준수 100% 도전은 성공보다는 현장을 보고 느끼는 체감형 시민운동으로, 총 17회 도전해 14회 성공했고 92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찾아가는 시민의식 교육'은 순천의 교통문화와 정신회복 시민운동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순천알리미 시민강사가 학교 · 단체를 직접 방문해 순천의 생태 · 문화 · 정신과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경로당, 자원봉사단체 등 8,45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31회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횡단보도 앞 대기공간에 '노란발자국'을 부착하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보행자중심의 교통사고 예방장치를 마련했다. 부착방법이 쉽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남산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2개소에 시범 부착했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복순천시민운동추진위원회는 '나는 교통질서를 꼭 지키는 시민입니다' 차량용 스티커 부착 릴레이를 전개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중국관광객 유치 마케팅 시동

中 파워블로거 유학생 12명 초청 1박 2일 팸투어 실시

광양시는 최근 주춤했던 중국인 한국 관광이 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20일 1박 2일간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이면서 중국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로 12명이 참석해 우리 지역 내 관광지를 투어하며,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날은 LF스퀘어 광양점에서 쇼핑과 식사를 하고, 3대 맥을 이어온 광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장도 전수교육관을 방문한다.

이어, 폐철로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명소인 광양와인동굴과 순천과 여수, 하동, 남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봉산전망대를 방문하고, 밤하늘 형형색색 LED 조명의 불빛 향연의 일품인 비밀의 숲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를 둘러볼 예정이다.

둘째 날은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백운산휴양림과 천년 역사가 담겨있는 옥룡사지(국가사적지 407호)를 둘러보고, 도내 3대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도선국사마을에서 향낭과 매실강정을 만들어 봄으로써 한국의 농촌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문수 관광과장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방안으로 이번 팸투어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날 경험한 지역의 관광자원이 중국 유학생들의 SNS를 통해 많은 중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 통합서비스 시작

보건소에 둥지…내년 7월 정식 개소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화순군보건소에 임시로 문을 열었다.

화순군은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현을 위해 18일 화순군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식을 갖고 체계적인 치매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구충곤 화순군수, 강순팔 군의회의장, 치매조기검진 협약병원장(화순성심 · 화순중앙 · 보은병원), 치매환자 및 가족, 보건소 관계자 등 50여명이 함께하며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를 축하했다.

치매안심센터는 5명의 전문 인력이 치매조기검진, 환자상담 및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치매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치매안심센터 임시개소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 복합건물을 신축해 내년 7월 정식 개소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치매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전남도 투자유치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혁신산단 분양률 60.2%…에너지밸리 핵심거점 발돋움

나주시가 올해 전남도 투자유치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나주시는 18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된 '2017 전라남도 투자유치 한마당' 행사에서 ▲순수 투자유치 실적(MOU, 분양계약), ▲투자여건 조성(예산 편성 · 집행), ▲투자유치 사후관리 등 투자유치 관련 평가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전남도 내 22개 시 · 군에서 최우수 기관(3곳)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날 투자유치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선 이재승 나주시 일자리정책실장은 민선 6기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을 비롯해,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 지원 사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그간 굵직한 주요 성과들을 언급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나주시는 혁신산단을 비롯해, 신도산단, 혁신도시 클러스터 등에 지금까지 29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170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 5천2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과 5,003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각지 기업들의 투자 러시에 힘입어 나주 혁신산단은 분양률 60%를 돌파(60.2%),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이날 교통 · 공원 안전시설물 제조기업인 우성무역산업(대표 김만호)과 혁신산단 내 4,500㎡부지, 총 7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우성무역산업은 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나주시는 민선 6기 기업유치 목표인 300개 대비 96.7%를 달성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경기침체와 고용절벽 속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내 2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우리 나주가 투자와 일자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크나큰 성과"라며,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도 비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순천시가 2018년도에 추진할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청별관에서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신봉현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지난 15일부터 읍 · 면 · 동 시설직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 안길, 하천, 하수도 등 총 429건, 사업비 78억여원에 대한 자체 설계를 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 현지 조사와 측량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 연초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신규 시설직 공무원에게는 설계경험 등 업무연찬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여 직무역량 배양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